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고개숙이고 있는 재웅이를 할머니 최씨가 다독거려 주고 있다.

아들없이 손자와 사는 할머니

가난 지긋…대물림 안됐으면

TV시청에만 열중하는 재웅(11세, 번동초등학교 4년)이.

최연순 할머니는 늘 말없이 TV앞에만 우두커니 앉아 있는 손자가 안쓰럽기만 하다. 제대로 입히고 먹이지 못하는 가난에 찌든 생활. 며칠 후일지, 몇 년 후일지 모르지만 혼자 남겨질 손자 녀석이 걱정이다. 최 할머니는 96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과 3년 전 재웅이를 남겨 두고 재혼한 며느리가 괜히 원망스럽다.

30만원으로 한달생활

현재 최 할머니는 남편과 재웅이와 함께 산다. 남편 한기준(70세) 할아버지는 지난해 9월,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하면 그나마 3년 정도를 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한 상태다.

남편 병 수발을 들던 최 할머니 또한 오랜 지병으로 거동조차 불편하다. 재작년 4월에는 폐혈증으로 8일 간 혼수상태에 빠져 사경을 넘나들다 살아났다. 최근에는 루마치스 관절염이 생긴데다가 정신까지 쇠약해져 신경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현재 이들 세 식구는 정부로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한기준 할아버지 앞으로 나오는 정부지원금 3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9월 구청에서 9평짜리 지하 전세방이라고 얻어 주지 않았다면 생활자체가 불가능했을 정도다. 매월 30만원으로 세 식구가 살다보니 '먹고산다'기 보다는 '연명한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최 할머니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긋지긋한 '가난'이 재웅이에게 대물림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커갈수록 성격이 어두워지는 재웅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하루 한 끼, 잘 먹어야 두 끼의 밥. 그래서 늘 배고프다고 투정을 부리는 손자 녀석을 배불리 먹일 수만 있다면, 그래서 배라도 부르면 잘 웃기라도 할 텐데…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재웅이 키워주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고 싶어…내가 죽으면 우리 재웅이 누가 밥이나 먹여 줄꼬."

혼자 남겨질 손자걱정

힘없는 최 할머니 말에 재웅이는 이내 고개를 떨구고 만다. 그리고는 내복차림으로 밖으로 나가 버렸다. 어린 소견이지만 할머니의 말에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최 할머니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부처님, 우리 재웅이…"하며 눈물을 글썽였다.

주소:서울시 강북구 번2동 148-357 광신주택 지층1호 / 후원방법:전화 (02)945-4622, 계좌 농협 051-02-454915(예금주 한재웅)

김철우 기자

신행캘린더

2월 7일 (목)

■광주불교대학 '무량수경' 강의=광주불교대학은 오전 10시 30분 본원 강의실에서 정의행 법사의 '무량수경' 강좌를 마련한다.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토세계에 계시는 아미타부처님에 대해 알아볼 기회. 이 강좌는 내달 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열린다.(062)228-9098

■어울시민문화원 '전통문화강좌'=대금, 단소, 장구를 배워보자. 혼자서 배우기 어려운 전통악기들을 하나씩 배워서 옛사람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기회.

어울시민문화원은 수원 영화동과 인천시 부평동 본원에서 1달 동안 전통문화를 배울 수 있는 강좌를 마련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3만원.(031)256-6938

2월 8일 (금)

■양정청소년수련관 '무료영화상영'=엘도라도, 아틀란티스, 쥬라기공원 등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영화는 모두 모였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은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본원 7층 소극장에서 청소년을 위해 무료영화를 상영한다.(051)868-0750

■맑고 향기롭게 '불우이웃돕기'=맑고 향기롭게는 매주 금 오전 9시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독거노인과 결식아동을 위한 밑반찬을 만든다. 배고픈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보시행은 불자의 기본덕목.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02)741-4696

2월 9일 (토)

■우리는 선우 '법화경 공부 모임'=우리는 선우는 오후 3시 서울 장충동 선우법당에서 '법화경 공부모임'을 갖는다. 소설가 남지심 씨가 법화경의 내용을 재미있게 풀어주기 때문에 불교초심자도 쉽게 법화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02)2278-8672

2월 10일 (일)

■터사랑 '삼보사찰 성지순례'=터사랑은 1박 2일 동안 양산 통도사,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선암사 등을 돌아보는 성지순례를 떠난다. 부처님 진신사리 참배 기회와 부처님의 가르침, 이를 전한 고승들의 자취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출발은 오전 7시 30분 서울 안국역 4번 출구. 참가비는 어른 8만원, 어린이 7만 5천원.

2월 12일 (화)

■한마음선원 '새해맞이 촛불재'=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새해를 맞아 자기 마음 속의 불을 밝혀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 보자.

한마음선원은 14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안양 본원과 각 지원에서 '새해맞이 촛불재' 행사를 개최한다. 안양본원 (031)470-3100

2월 14일 (목)

■봉은사 '신년대법회'=가족들이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고 신심을 다잡으며 새해를 경건하게 맞이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도 없을 것이다.

서울 봉은사는 오전 11시 대웅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초청해 신년대법회를 봉행한다.(02)511-6070

◇한마음선원의 지난해 촛불재 모습.

"이런 불자가족 보기 힘들겁니다"

우리 절 우리 신도

천안 각원사 신도회 부회장 정영 거사

◇신도들과 회의를 하고있는 정영거사(사진 맨오른쪽). 정거사의 항상 웃는 얼굴때문에 회의분위기는 늘 봄날씨.

충남 천안 각원사 신도들은 각원사를 소개할 때 세 가지를 자랑한다. 그 하나는 오늘의 각원사를 있게 한 주지 법인스님과 부주지 대원스님이고, 또 하나는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뜻에서 조성된 높이 15m의 청동대불이다. 그리고 신도회 부회장인 정영 거사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는다.

각원사 신도치고 정영(59) 거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름이 외자라서도 아니고, 겉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찰이라는 직업 때문도 아니다.(정거사는 지난해 천안경찰서 서부파출소장직에서 퇴임했다).

77년 각원사 건립 이래 지금까지 35년간을 각원사와 함께 해 온 고참신도들 중 한 명이라는 점도 그렇고, 사찰 대소사 뒤에는 반드시 정 거사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 신도들은 정 거사를 '말없는 좌불'이라고 부른다. 이 별칭은 각원사를 상징하는 청동대불(좌불)에서 따 온 것으로, 정 거사의 얼굴이 청동대불의 온화한 미소를 닮은 데다, 늘 말이 없기 때문이다.

1월28일 월요일 오후, 정 거사는 다음날부터 시작될 입춘 7일 기도 입재를 앞두고 몇몇 회원들을 종무소로 불러 모았다. 기도가 원만히 회향될 수 있도록 사찰에서 준비해야 할 것을 미리 챙기기 위해서다. 가까운 집안의 행사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 거사는 바쁜 시간을 쪼갰다.

정 거사가 신도회 부회장을 맡아 이렇게 사찰의 대소사를 돌봐 온지 올해로 벌써 10년째. 정기적인 법회나, 사찰 행사는 물론, 김장 담그는 일에서부터 신도들 상담에 이르기까지 정 거사의 활동은 '일당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다. 일 추진은 물론이고, 신도들 간에 화합을 이끌어 내는 것도 그의 몫이다. 이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소위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 거사에게 그런 것은 없다. 그저 항상 웃는 얼굴에 조용한 말투.

"복잡하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하지만 늘 마음으로 일하고 마음으로 신도들을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스님들께서도 늘 마음을 말씀하시죠.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정 거사가 신도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이유는 또 있다. 다름 아닌 정 거사 가족이 모두 신심 깊은 불자라는 점 때문이다. 아내 최병희(55) 보살은 정 거사를 그림자처럼 따르며, 사찰 일을 거든다. 두 사람은 각원사 부부모임 신행단체인 '자비회' 회원이고, 최 보살은 여자 신도들로만 구성된 '보현회' 회원이기도 하다. '자비회'는 사찰의 대소사를 챙기는 모임으로, 최 보살은 남편과 함께 사찰 일을 거들며, 가정법회 모임인 '보현회' 회원으로서 신행생활에도 열심이다.

이뿐만 아니다. 2남2녀 자식들 모두가 각원사 청년회 출신으로, 사찰에 행사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힘을 보탠다. 큰 아들(32)은 각원사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막내 아들(23)은 초파일 제등행진 때마다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장엄물을 만든다. 차녀(26)는 불교유치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온화한 미소·과묵… '말없는 좌불' 별명
부인등 온가족이 사찰 대소사 돌봐

12년째 각원사 종무를 맡아온 박흥열 부장은 "이런 가족은 보기 힘들겁니다. 다 정 거사님의 신심이 깊기 때문이죠.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자랑이 끝이 없다.

정 거사는 지난해 30년 넘게 일해오던 경찰생활을 마감했다. 밤낮이 없다는 경찰시절에도 철야기도, 참선정진, 삼천배 기도법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했던 정 거사는 "이제부터야말로 마음껏 수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다.

수행 외에 정 거사에게는 또 다른 원이 있다. 양로원과 어린이집을 짓는 것이다. 정 거사는 신도회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사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환원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은혜만 입고 살았으니, 이젠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안=한명우 기자

추천의 말

대원 스님 천안 각원사 부주지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 경찰관인가' 싶을 정도로 순한 인상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순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찰 일은 물론이고 신도들 대소사도 빼놓지 않고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각원사가 이만큼 자리잡기까지는 정 거사의 공이 큽니다. 아무리 궂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해주었으니까요. 게다가 법회 때마다 두 내외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자녀들과 며느리까지도 신심이 깊으니, 한마디로 정 거사 가족들은 각원사의 자랑이죠.

정 거사는 지난해 정년퇴임을 2년이나 남겨놓고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 명예퇴직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씨입니까.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씨와 깊은 신심을 가진 신도가 우리 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 뿌듯합니다.

2002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1982년 설립되어 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본 대학은
종합적인 불교교육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뜻 있는 불자들의 입학을 기다립니다.

① 모집 내용
가. 불교학과 (정규 및 통신생) : 00명(편입생 약간명)
나. 범 패 과 : 00명
다. 불교미술과 : 00명

② 응시 자격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가. 신입생
1)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2) 강원 사교과 이상의 수료자
3) 태고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
나. 2학년 편입생
1) 정규대학 졸업자
2) 불교교양대학 졸업자

③ 전형 방법
※필기시험 및 면접(공통), 실기시험(불교미술과)

④ 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2002년 1월 14일(月) - 2월 22일(金)
(평일은 10:0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공휴일은 휴업함.)

⑤ 전형일
※2002년 2월 24일(日) 10:00 - 17:00

⑥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 양식) 1부
나.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다.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라. 고교 생활기록부 1부
마. 주민등록등본 1부
바. 승적증명서 또는 수계증 사본 1부
사. 반명함판 사진 6매

⑦ 전형료
※ ₩30,000(불교미술과 ₩40,000)

⑧ 참고사항
가. 본 대학 이수자에게는 태고종단 포교사자격증을 수여하고, 2년 과정을 이수한 태고종단 승려에겐 대선법계를 품수 함
나. 기숙사 운영(지방 학생 문의 바람)

⑨ 기 타
가. 제출 서류 가운데 승적증명서나 수계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나머지 서류만 구비하여 제출하면 됨
나. 편입생 응시자는 수학 경력에 따라 편입토록 함
다. 통신생은 월 1회(1박 2일)의 출석교육을 이수해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교학처로 문의하기 바람

⑩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본 대학 교학처(☎763-0229,8536)
나. 태고종 총무원(☎745-2030~2)
다. 태고종단 각 교구종무원
라. 경서원(☎733-3346)

동 방 불 교 대 학 교